

■ 해남 화력발전소 유치 무산

6개월 양분된 지역 사회 갈등봉합 최우선 과제로

해남군의회 제192회 임시회 12월 해남군이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하려던 화력발전소 건설이 물거품이 됨에 따라 지역간 갈등 봉합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제 기업 MPC코리아홀딩스는 지난해 11월께 5000MW급 화력발전소 건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예정부지 주민들은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를 견학하는 등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기독교교도회와 통합진보당 해남군위원회, 농민회 등을 주축으로 한 반대 대책위가 구성돼 지역민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 지난 3월에는 찬성측 주민이 반대측 대책위 사무실에 트랙터를 몰고 돌진하는 등 주민들간 감정적 대립도 극

에 달하면서 지역사회가 양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남도의회와 목포시와 신안·진도군의회의가세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인접 지자체간 갈등으로 확산됐다.

박철환 군수는 “지난 6개월 동안 화력발전소를 두고 겪어왔던 찬반 갈등을 모두 접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던 순수한 열정과 노력만을 기억하자”면서 “화력발전소를 두고 겪어왔던 찬반 갈등을 모두 접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던 순수한 열정과 노력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이 추진한 화력발전소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비슷한 상황인 고흥군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

다. 고흥지역은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봉래면 일대에 포스코건설이 4000MW급 유연탄 화력발전소를 오는 2020년까지 7조원을 들여 건설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의향서를 제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흥군은 타당성 조사와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한편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서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의 유치 동의안을 부결한 해남군 의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민간사업자 및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고흥·여수 등지의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여수 박람회 보고 환상 비경서 캠핑

돌산 ‘굴전 캠핑장’ 인기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여수시 돌산을 경사리 굴전 여가캠핑장이 개장 첫날인 지난 4일부터 성황을 이루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개장 첫날인 4일에도 캠핑장 이용자가 260명이나 됐다. 여수 세계박람회 개회달인 5월에는 숙박 및 캠핑시설이

100% 예약 완료됐다. 굴전 여가캠핑장은 부지면적 1만 6800㎡에 캠핑장 53면, 펜션형 숙박시설 4동 등 총 3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부대시설로는 세미나장과 공동 취사장, 샤워장, 1.4km의 탐방로 등을 갖추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굴전 여가캠핑

장이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금오도 비렁길’과 박람회장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바다와 잘 어울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 제일의 캠핑장이 되도록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m@

고흥, 파프리카 수출로만 18억 대박

친환경 인증 획득... 토마토 등 年 33억원 소득

고흥지역 농민들이 파프리카와 완숙 토마토 등 시설 과채류를 저농약으로 재배해 친환경 인증을 획득, 연간 3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군 도덕면 흥양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중을)은 첨단 유리온실 5.1ha에서 파프리카 60t을 생산, 전량을 일본에 수출해 18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 2ha에서 완숙토마토 1050t을 생산해

서울 등 수도권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해 1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법인은 다른 지역보다 2도 가량 높은 겨울철 평균기온과 풍부한 일조량 등 지역여건을 활용해 지난 2005년 첨단유리온실 7.1ha를 설치, 파프리카와 완숙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시설과채류는 친환경인증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의 웰빙 기호에 맞춰 2010년부터 파프리카(2.5ha)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법인은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인증 단계도 무농약으로 한 단계 높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전종화 도 친환경농업 과장은 “시설 규모화와 함께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시설원에 품질 개선 사업비 등 국고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수출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국제 행사 지원 힘 모읍시다”

보성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전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종득 목포시장)는 영유아 보육료 무상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추가 부담의 국비 지원과 함께 다문과 가족들의 친정 나들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보성군청에서 제10차 회의를 갖고 올해 도내에서 개최되는 여수 세계박람회, F1대회, 국제 농업박람회 등 각종 국제 행사에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예산 국비 상향지원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한 도비 지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정종득 협의회장은 “일선 지방자치 현장은 열악한 재정환경과 중앙 집권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남이 부강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llyc@

“농산물 판로 걱정마세요”

광주농협 ‘빛찬들 연합사업단’ 출범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가 지역농산물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합사업단을 구성, 판로개척에 발 벗고 나섰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4월 관내 대촌·동곡·송정·평동농협과 함께 ‘빛찬들 연합사업단’을 출범시킨데 이어 7일 대촌 부추와 완숙 토마토, 동곡 ‘태국 애호박’을 첫 출하했다. ‘빛찬들 연합사업단’은 광주 농산물 주생산지인 대촌·동곡·송정·평동 지역의 품목별 공동선별·공동출하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물량 결집

과 고품질화를 통해 수도권 등에 공급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기 위해 출범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대촌 ‘빛찬들 풋고추’, 평동 ‘빛찬들 방울토마토’, 송정 ‘팽팽이가지’를 집중 출하해 올해 60억원을 판매할 계획이다.

박태식 광주지역본부장은 “산지 유통조직 활성화와 농산물 품질 강화, 브랜드 강화로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에 앞장서 농가의 수취가격 제고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어르신들에 보행보조기 1000대

광양제철 모금회 기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8일 어버이 날을 맞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차를 지원한다.

광양제철소는 “올해 처음으로 2억 6000여 만원을 들여 지역 노인들의 자유로운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 보

조차(실버카) 1000대를 전남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8일 광양시청 앞 광장에서 이성용 시장, 백승관 광양제철소장, 수혜 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갖는다. 기업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지원한 사례는 포스코가

처음이다. 보행보조차는 접이식으로 보관이 쉽고 의자와 소용돌, 워터저 주차 브레이크 등이 탑재돼 있어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

백승관 광양제철소장은 “지역 상생문위기 조성 및 사회환원 차원에서 이번 보행보조차 지원을 하게 됐다”면서 “갈수록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의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플래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

대한불교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폐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송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